

구례 운조루·강진 영랑생가 등 고택·종갓집 문화사업 탄력

나주 남파고택·강진 정약용 유배지·영암 구림마을 종가 등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5개 선정 국비 3억4400만원 지원받아

전남도는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1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공모에 도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억44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택·종갓집의 문화를 가깝고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하면서 종가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했다.

문화재청은 내년 지원대상으로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40개 사업(국비 25억원)을 선정했으며, 이중 전남도는 5개 사업이 선정돼 지역 종가문화 발전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내년에 추진할 사업 프로그램은 ▲나주 남

파고택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가 역사문화 배우기' ▲구례 운조루의 '운조루 문화뒤주 프로젝트' ▲강진 영랑생가의 '더 삼 252 영랑생가' ▲강진 정약용 유적을 활용한 '명발당 유배지에서 길을 찾다' ▲영암 죽정마을 옛담의 '영암 구림마을 종가여행'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공모에도 이미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된 바 있으며, 국비 포함 총 사업비 3억 8600만원을 투입해 현재 나주, 구례, 보성, 영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규모가 확대돼 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8억6600만원 규모로 진행할



구례 운조루



강진 영랑생가

계획이다.

정명섭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모는 전남 종가문화 자원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종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13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공직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내년부터 전남 동·서부권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한다

전남도는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공심야약국을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후 도민의 이용과 호응도를 살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각각 1개소씩 설치해 시범운영
호응도 살펴 점차 확대 할 계획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일반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인건비는 도와 시·군이 지원한다.

특히 약사가 복약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장점에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74개소에 불과하다. 국내 총 약국수가 2만4000여 곳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심야시간대 응급 약국 접근율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일반 진료를 위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지고 있다”며 “심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도민들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위해 전남약사회와 운영 방안 및 지원 기준, 대상 약국 선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정선용 기자

“불 나면 큰일”... 광주·전남 10개 학교에 소방차 못 들어간다

‘진입 곤란’ 전국 41개교 중 25%

광주·전남 지역 10개 학교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울)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41개교가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광주·전남에서는 전국의 25%에 해당하는 10개교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광주 1개교,

전남은 분교를 포함해 9개교(여수 6개교·진도 3개교)다.

대부분 출입문·학교 건물 주변 장애물, 비좁은 진입도로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희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오고 새들이 지저귀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핀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